

2026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6. 3. 20.(금) 14:00~15:10
- 장 소 : 4층 상황실
- 회의내용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 등
- 참석자 : 16명(당연직 8, 위촉직 8)

□ 개회&인사말씀(위원장)

- 위원 19명 중 16명이 참석, 성원이 되어 회의를 시작함.
- 바쁘신 중에도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인구정책 2026~2030년 기본계획(안) 및 202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키움 으뜸계장)

- (군산시 인구 현황 보고) ‘25년 12월 말 기준 256,291명, 출생아 수 1,073명, 사망자 수 2,372명, 순이동은 △574명으로 청년 및 유소년 등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 증가
- (‘25년 인구정책 주요성과)
 - : 일자리-주거-돌봄을 모두 잇는 생활 기반형 인구정책 정착
 - 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청년일자리 모델 구축 ② 주거비 경감으로 청년·신혼부부 정착 촉진 ③ ‘돌봄 공백 제로 도시’ 기반 마련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 허브앤스포크(중점-Hub & 연계-Spoke)
 - 비 전 : 아이와 청년이 머무는 도시, 함께 키우는 우리들의 군산
 - 목 표 : 지속가능한 전 생애 기본삶을 보장하는 정주 생태계 구축
 - 전략과제 : 중점(아이키움/청년정착), 연계(생활인구/세대공존/정주유지)
- (군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 추진 방향 등
 - 출산·양육 친화 환경 고도화
 - 청년 순유출 감소 및 유입 기반 확대
 - 초고령사회 대응 및 생활 인구 확대
 - 생애주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위원 자유토론

- (위원장)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들으셨음. 인구정책의 한 방향으로 교육과 의료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함. 산단 등의 근로자 상당수 타지 출퇴근 이유가 교육과 의료임. 상산고 이상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생공간 (예를 들어 베트남 거리나 타운 등)을 조성하면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임 위원님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기획행정국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이 390여명인데 출생아 수에 비해 부족해 보임
-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비슷한 사업의 중복지원 배제에 따른 규모이며 도비 사업이지만 추후 부족 시 시비 더 투입하여 지원 예정
- (기획행정국장) <다자녀 패밀리카 렌탈 지원> 수요가 많으면 사업량을 늘려 올해도 지정 기부받는 것 검토 필요
- (키움 으뜸계장) 공고 후 접수 및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추후 필요시 예산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음
- (기획행정국장) <청년 부부 스/드/메 결혼비용 지원>이 도비지원사업이지만 대상 범주를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도내’ 에서 관내로 한정 가능한지
- (키움 으뜸계장) 도비지원이지만 자체사업으로 추진 시 관내로 한정하겠음
- (보건소장) 기본계획(안)의 비전 ‘아이와 청년이 머무는 도시, 함께 키우는 우리들의 도시’ 에서 ‘머무는’ 은 ‘잠시’ 라는 의미가 상토되어 미래 지향적 표현인 ‘성장하는’ 으로 바꾸면 좋겠음.
또 엄마들이 정보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아이들 실내 놀이시설이 장기계획에 담겼으면 함
- (복지교육국장) 현재 군산대와 교육지원과 협력으로 ‘군산대 복합센

터 건립' 을 추진 중으로 아이 실내 놀이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출산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인구유입 정착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의료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중에 있고 노인들도 살기 좋은 도시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 관광 및 문화 복지 혜택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하여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함

- (안전건설국장)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지만 시행계획 목표의 인구수가 작년보다 2천여명 좀 더 적은 숫자로 하향 유지로 되어 있어 이를 좀 더 상향하는 쪽으로 고려해보는 건 어떤지
- (위원장) 좋은 지적이지만 현재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소폭 감소 인구 유지 목표도 잘하고 있다고 봄
시민정책제안에서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아이와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 (복지교육국장) 엄마들이 아이에게 어르신들의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 검토 중임
- (조경신 위원) 현재 짓고 있는 전북대병원도 종합의료시설로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의 특성화가 된다면 좋을 거 같음.
- (보건소장) 동군산병원, 의료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급 종합 병원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며, 5개센터 34개과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이 빠르면 '28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임. 노인 귀촌 시 정주 환경이 중요하여 아이+청년보다 노인에게도 집중 필요함. 현재 청년 일자리 지원이 위주로 60세 이상 정년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 강화할 필요 있음

- (경제산업국장) 현대차 투자로 AI, 로봇, 수소 사업 등의 생태계 구축 예정 등으로 청년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추진 전략의 아이키움+과 청년정착이 주요 중점 과제인 만큼 지금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소득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 아이 꿈탐험> 사업처럼 특히 결혼·출산·양육지원은 소득 조건 없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함
- (위원장) 외국들의 국내 거주 희망지가 군산이 3위로 외국인들의 체류 및 정주 방안을 검토해 보길 바람
- (문화관광국장) 문화 관광쪽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관광 생활 인구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음
- (임영란 위원) 정주 여건, 노인시설, 아이 놀이시설 등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음. ‘폐교’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과 시 교육지원과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육사업비 만큼은 지켜주길 바라며, 중고등학생 버스 등하교 시 노선이 용이하지 않음. 현재 시에서 버스노선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어 학생들 통학에 용이하도록 반영 바람
- (채현욱 위원) 시 외곽 노인들의 시내 복지관 이용이 불편하여 노인들의 복지관 이용 시간에 맞춰 배차시간을 고려해주길 바라며, 패밀리카 지원은 관내 거주 1년 이상자 뿐만 아니라 전입한 사람도 지원 가능 했으면 함. 그리고 가사서비스는 타인에게 집을 개방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 지원해도 된다는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장 퇴장

- (위원장) 3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 먼저 자리를 이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시해 주시길 바람
- (키움 으뜸계장) 남은 회의는 김경림 부위원님 주재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음.
- (키움 으뜸계장) 이전에 나왔던 의견 중 몇 가지 답변하자면, 고령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고령자단지개발’ 이 국회 법률 상임위를 통과하여 우리시는 전북연구원과 정책과제발굴에 대한 용역 예정인 것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 그리고 목표 인구수 관련하여 현재 인구 증가는 어려우며 인구감소의 속도관리로 도시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유지 가능하도록 하는게 목표인 점 양해 바람
- (양정승 위원) 비전에 청소년, 여성정책 분야가 소외된 것 같고 청년+여성이 즐길거리가 부족해 지원 필요. 외국인 장기거주자에게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음
- (키움 으뜸계장) 인구정책으로 전 생애주기로 끌고루 담으려고 노력했으나 부서 내 청년과 외국인 파트가 별도로 있고 시행계획을 준비중으로 자세한 세부 과제는 해당 과제에 담는 것으로 하겠음
- (부위원장)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만 회의를 마치겠음

□ 폐 회